

대기업 공채 시작...상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본격화

삼성·SK하이닉스·포스코·LG 등
경기침체 여파 취업문 좁아질 듯
신성장 사업 분야는 늘어날 전망

주요 기업들이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대기업들은 전체 채용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는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 중순께 상반기 3급(대

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예년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지원서를 받고 4~5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치러진다. 이어 5~6월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삼성고시'라고도 불리는 GSAT는 올해 상반기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SAT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또 앞서 지난해 5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

고, 공채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침체로 채용 문은 좁아진 상황이지만 삼성은 바이오 등 신성장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부 수요 및 채용 환경을 고려해 상반기 안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래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채용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반도체 업황 악화로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이달 6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생 대상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을 순회하며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었지만, 올해부터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루오 4개사는 오는 22일 오후 3시까지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를 받는다. 현대자동차는 10년 만에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지난 2일 채용 공고가 나와 채용

페이지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9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751개사(대기업 75개사·중견기업 147개사·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3%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금리 인상, 경기둔화 등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큰 탓에 채용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은 기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전남농협, 삼겹살데이 행사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3일 삼겹살데이 20주년을 맞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곡성축협 아외 행사장에서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복 전남농협 경제본부장과 이화섭 대한한돈협회 곡성지부장, 이철신 농협 곡성군지부장, 박영규 곡성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고객을 대상으로 삼겹살, 목살 등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우리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소진공, 소상공인 원금상환 부담 해소 나선다

'집중관리기업 제도' 접수·지원
월 상환 부담금 최대 65% 경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 등 대내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해소를 위한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생생누리 사이트를 통해 접수·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에 처한 업체의 상환기간을 자체 채무재조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상환기간 일원화를 통해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월 상환 부담금액을 최대 65%까지 경감하는 효

과를 가진 '다중채무 1계좌 통합 상환 플랜'을 제공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동시 제출만으로 심사 시 필요한 정보를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소진공은 이를 통해 신청에서 심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시켰다.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매일 1일에서 9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곳 지역 센터 및 생생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진공은 생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의 경우 공단 담당자가 일정 조율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류 정구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 지역센터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오지현 기자

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될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기업현황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해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집중관리기업 제도는 3고 위기 속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단순 원금상환 지원 목적으로 신청 시에는 지원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6개월 간 채무재조정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지현 기자

'신학기 기대' ...지역 중기 경기전망 소폭 개선

SBHI 80.6...2개월만 80p 회복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소폭 개선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 206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연합 경기전망지수(SBHI)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79.5) 대비 1.1p 상승한 8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70p대로 하락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80p대를 회복한 것으로 전년동월(90.6)과 비교했을 때는 10p 하락한 수치다. SBH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8.4) 대비 3.0p 하락한 75.4, 전남은 전월(80.7) 대비 6.0p 상승한 86.7로 전망됐다. 전국 평균은 83.1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1.1로 전월(79.7) 대

비 1.4p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80.0로 전월(79.3) 대비 0.7p 올랐다. 항목별로 ▲내수판매(79.8-80.1) ▲수출(94.0-96.3)과 역계열 추체인 ▲고용수준(95.9-94.2)전망은 전월비 상승했고 ▲경상이익(76.3-74.5) ▲자금사정(78.3-75.2)은 하락했다. 지난달 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 상승'이 63.6%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55.3%) ▲내수 부진(53.4%) ▲업체간 과당경쟁(36.9%) ▲물류비 상승·운송난(35.4%)순으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국내의 경기침체 지속·소비심리 위축·경기 불확실성에도 신학기 등으로 인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지역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69.0%로 전월 대비 0.8%p 하락했다. 80% 이상을 정상 가동으로 보지만 광주는 65.6%, 전남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 /홍승현 기자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 인증' 획득

고분자재료·금속성분분석실 2곳
"안전사고 없는 연구소 노력"

국내 최대 모빌리티 종합연구소인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가 안전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소 내 고분자재료분석실, 금속성분분석실 등 2곳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현대차·기아 연구실 가운데 정부 공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안전환경 활동수준(50점) ▲안전관

리 관계자 안전의식(20점) 등 3가지 분야에서 각각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 인증을 획득한 남양연구소 고분자재료 분석실과 금속성분분석실은 기초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곳으로 다양한 금속 및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700종 이상의 금속 및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용 시약장을 구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비와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췄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정밀 안전 진단과 안전 유해 요소 발굴 및 개선, 안전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두 연구실의 안전관리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남양연구소 내 주요 연구시설에도 확대 적용하고, 안전관리 인증을 취득하는 연구실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은 "이번 우수 연구실 인증을 시작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이상기후·식량위기 선제 대응 나설 것"

KCID 이사회·정기총회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는 지난 3일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2022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결산서를 승인받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KCID대상, 젊은 기술인상, 최고 분과위원장상 등 3개 부문의 시상도 진행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위원들이 이사회 및 정기총회 폐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제공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이병호 회장은 "AI·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물관리로 이상기후·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